

그때 그 자리

# 다시 대학로를 기리며

김주연



동승동 문리대 캠퍼스. 젊은 시절의 아스라한 추억을 떠올리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젊음과 낭만이 흐르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1970년대 초 그곳의 주인이었던 젊은이들은 민주화의 성소 聖所라고 생각한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탈바꿈한 그곳에는 지금도 그때처럼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유신 철폐'를 부르짖는 젊음의 포효도, 눈을 찌르는 매캐한 최루탄 연기도, 방석모를 쓰고 곤봉을 든 전투경찰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머나먼 옛날 일처럼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동승동 캠퍼스는 잊혀진 것 같다.

70년대 초반 동승동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했던 72학번 동지들이 최근 펴낸 에세이집 『새벽을 엮본 마로니에』의 서문에는 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스무 살이었던 시절, 시대의 긴 밤을 지새우고 쓰린 눈으로 새벽을 갈망하고 있었을 때 우리 청춘의 성소를 지키고 있던 마로니에 나무는 우리보다 먼저 새벽을 엮보고 있었다.”

동승동 캠퍼스에는 우람한 마로니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주변에서 토론도 하고 막걸리로 낭만을 나누기도 했다. 마로니에 나무는 자연스럽게 젊음이 한창 꽃피어 나던 동승동 캠퍼스의 상징이 됐다. 캠퍼스가 관악산 기슭으로 이전하고 난 뒤 조성된 공원으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불릴 만큼 마로니에 나무는 지금도 젊음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동승동 캠퍼스 앞 폐수가 흐르는 개천을 세느강이라고 불렀고, 작은 다리는 미라보 다리로 칭했다. 마로니에 나무와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는 우리식 낭만의 현장이었다. 특히 세느강은 술 취한 악동들의 목욕탕(?)이기도 했다.

동승동 캠퍼스에는 또 마로니에 나무 가지가 휘늘어져 내린 곳에 눈부신 화강암으로 빚어진 탑이 세워져 있었다. 4·19혁명을 기념하는 탑으로 벽면에는 “우리 문리대 학우여! 오라 그리고 보라! 그리하여 그대들 가슴 속에 이 끊는 脈動을 영원히 새기라”고 새겨져 있다. 이 글귀는 문리대 학우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당시를 회상하며 피를 끓게 한다.

동승동 캠퍼스에서 함께 뒹굴었던 시인 김정환은 70년대 초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70년대

내가 살던 학원은 초토였다

계엄군이 가장 강성하고 어둠이 가장 완벽하고

경제가 가장 기만적이고 억울한

최루탄과 눈물이 가장 가까울 때

눈물이 가장 비참하고 사랑이 가장 누추하고 우정이 가장

거추장스럽던 때

우린 교문과 철책을 사랑과 미움을 낭만과 절망을

가난과 따스함을 공통과 희열을

흔동하며 괴로워했다

부여잡고 울었다, 시커먼 교문을

그러나 그렇게 배웠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

시대의 어둠을 대낮 쨍쨍한 삶의

비극적 낙관을 다시 세우는 곳

그렇다 희망은 배움의 다른 이름이다.

(『캠퍼스 공룡, 역사-진리의 상아탑』 중 일부)

우리 72학번은 유신 독재의 혹독한 탄압과 함께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문리대 72학번은 재적생 3백 명 가운데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사람만 50명이 넘고 그들의 구속 기간을 통산하면 백 년이 웃도는 희생을 민주화 운동사의 몇 페이지에 바쳤다.

이제는 중진 국회의원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이해찬 학우는 이렇게 회고했다.

1972년 10월 16일 저녁 6시. 동숭동 문리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 하려고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문리대 교정으로 군인들을 태운 여러 대의 탱크가 돌진하는 광경을 봤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라디오를 들어 보니 학교를 당분간 휴교한다는 것이다. '10월 유신' 이었다. 사전에 나오는 維新의 뜻은 폐습을 개혁해 크게 바꾼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뜻은 박정희의 종신 대통령을 보장하는 친위 쿠데타이다.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신이 선포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1973년 10월 2일. 그 날은 박정희 정권이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유신에 항거해 최초로 서울대 문리대생이 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다. MBC 앵커와 여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정동영 학우도 그 날 시위에 참여했다. 정동영 학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문리대생들이 '유신독재 철폐'를 외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교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 왔다. 연좌농성을 벌이던 1천여 명의 대오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모두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너 번째 줄 맨 왼쪽에 자리잡고 있던 나 역시 옆에 앉은 친구의 어깨를 짚고 일어났다. 반사적으로 총장실이 있는 오른쪽 행정관 건물과 맞은 편 본관 강의실 사이로 나 있는 셋길을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달렸다.

마로니에 나무 그늘 사이로 50~60미터쯤 내달았을까. 내 옆을 바짝 따르던 동료 한 사람이 푹 고꾸라졌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어디선가 두 발이 번개처럼 날아와

내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찰나 사복경찰 한 명이 복날 몽둥이에 얻어맞은 개 모양으로 나똥그라진 내 등을 타고 짝어누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손에 내 머리채가 낚아 채인 순간,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줄이 풀어진 채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사복에게 머리를 잡힌 채로 나는 시계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시계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내 손목에 채워주셨던, 아버지의 체온이 스며 있는 시계, 그 시계까지는 한 뼘쯤 모자랐다. 시계에 다가가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군화발 하나가 내 손등을 으깸다. 동시에 다른 한 발이 스테인레스 줄이 달려 있는 시계를 공중으로 걷어차 버렸다. '어 시계, 내 시계……아버지!' 나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연신 아버지를 외쳤다.

나도 당시 시위에 참여해 스크럼을 짜고 4·19탑을 들며 '유신 철폐'를 외치다가 교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나는 경찰 병력이 교문 안으로 진입할 때 다행스럽게도 서울 법대로 통하는 구름다리를 넘어 법대 구내의 이발소에 숨었다. 경찰은 교수 연구실은 물론, 화장실까지 뒤져내 많은 학우들을 연행했으나 나는 다행스럽게도 경찰에 끌려가지는 않았다. 그 날 연행된 수십 명의 학우들은 29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으며 주동자들은 지명수배됐다. 그 이후로 캠퍼스 정문은 굳게 잠겨 또다시 침묵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우리는 동숭동 근처의 학림다방에 모여 시국 토론을 하거나 튀김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울분을 토하곤 했다. 그렇게 73년 겨울은 지나가고 있었다.

이날 벌어진 문리대 시위는 유신의 독기에 근 1년 가까이 숨죽이며 지내오던 민주 화운동 진영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운동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1974년은 학생운동사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해였다. 1974년 4월 3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생들의 외침은 '유신 철폐'라는 단순한 구호를 벗어나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승화됐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학우와 민주인사들이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학우 중의 하나인 권오걸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더 이해할 수 있다.

1974년 신학기에 들어서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저항운동의 준비가 진행됐다. 문리대 앞의 학림다방이나 튀김집, 그리고 명륜동 창현교회에서 모임이 빈번히 이뤄졌다. 3월 중순 들어 언어학과 정찬용 선배, 불문과 최권행과 나는 한 조가 됐다. 유인물 제작 담당이었다. 우리는 3월 하순경에는 당시 번두리 시골 동네인 방학동에 방을 하나 얻어 등사기 등 유인물 제작 시설을 갖춰 놓고 시위에 대비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 비트(비밀아지트)였다.

4월 3일을 전후로 종로와 청계천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예정됐다.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일어나면 노동자, 시민, 상인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매우 낭만적인 계획이었다. 정작 그 날이 되자 곳곳에는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고 삼삼오오 모여든 학생들은 집단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름의 유인물과 '민중의 소리'가 뿌려졌을 뿐이다.

당시 나는 현재 지방대 교수로 있는 수학과 최홍교와 함께 고인이 되어버린 상대 김병곤 선배를 만나 민청학련 명의의 '민중의 소리' 유인물을 받아 이를 배포하려다 경찰에 잡혔다. 최홍교와 나는 그 길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2개월 이상이나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서 유치장살이를 해야 했다. 긴급조치는 구금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장에서만 2개월 이상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2개월이 지난 뒤 난생 처음으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요시찰 대상인 노란색 패찰을 차고 2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그 해 광복절 직전 출감했다.

이 때문에 나는 당시 동승동 캠퍼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훗날 학우들한테서 들었을 뿐이다. 지금은 인천에서 선출직 구청장을 하고 있는 박우섭의 얘기는 다소 실감이 난다. 박우섭은 당시 연극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1974년 4월 3일 그 날 아침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에 등교했던 나에게 누군가가 오늘 데모가 있다고 알려왔다. 순진한 나는 그 말에 마로니에 나무 밑에서 운동장 스탠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위는 불발로 끝나고 느닷

없이 누군가가 정문 앞에서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주인공들은 보이지 않고 엑스트라들만 마구잡이로 끌려가는 이 실전 무대에서 나는 이를 막아보려 했으나 내 역량으로는 턱도 없었다. 난 이렇다 할 액팅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째새들의 역센 손아귀에 그냥 잡혀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민청학련 사건으로 문리대는 쑥밭이 됐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주동자들은 소위 '잠수함 타기'에 들어갔다. 일부는 자수(?)해서 광명을 찾기도 했다. 일부 주동자들에게는 당시로서는 거액인 1백만 원의 현상금이 붙었다. 당시 주동자로 전국에 지명 수배됐던 이철 선배는 고등학교 복장으로 위장하고 숨어 다니다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들었다. 신문은 간첩단 조직표 같은 그림표가 그려진 채 친북 혁명세력을 검거했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로 도배됐다. 주동자들은 최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개신교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양심적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민청학련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리는 유인물이 은밀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던 시절이었다.

1974년 그 해 가을은 유난히 빨리 왔다. 나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 가을 학기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물론 여름에 학적 변경이라는 이유로 입영 영장을 받고 신체 검사를 마친 뒤였다. 때 마침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던 날 고속버스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의 피살 사건을 들었다. 정부는 육영수 살해범 문세광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한 뒤 사건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문리대 화장실 등지에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인물들이 은밀하게 나돌기도 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민청학련 사건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학우들보다 먼저 풀려 나왔다는 점이 아무래도 마음에 거슬렸다. 친구들은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그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수년 동안 함께 동승동 캠퍼스에서 토론하고 울분을 토하던 학우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던 몇몇 친구들을 규합했다. 민청학련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우리는 민청학련 사

건의 조작 경위와 성명서를 유인물로 제작해 학내에서 시위를 하기로 모의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문리대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2선에 물러나 있던 학우들이 있었고 때마침 학생회와 대의원회까지 부활해 활동 중이었다. 학생회 등 공식 단체에서도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는 그 시위에 맞춰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시 박우섭의 증언을 들어보자.

‘천고마비’ 한다는 가을 하늘이 문리대 상공에 슬프게 펼쳐져 있던 어느 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가 슬며시 전해줬다. 데모를 할 예정인데 연극반은 1진이 치고 나가다가 깨지면 2차를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데모를 하기로 한 당일, 현장에 나가 보니 학생들은 모였는데 주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미 달려갔거나, 아니면 움츠리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리에 좀 해괴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이왕 이렇게 모였는데 굳이 2차를 기약할 일은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무작정 나서서 데모대를 이끌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구호를 선창하며 누가 보면 무지 용감한 선동가처럼 액팅을 했지만 엄청 겁이 났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기치 못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평소엔 약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곤 했던 법대에서 이석원 등이 데모대를 이끌고 구름다리를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의기양양해진 우리는 최초로 문리대 도서관을 점거하는 데모에 돌입했다. 경찰이 곧 진입할 거라는 교수님들의 협박과 회유에 농성을 풀긴 풀었는데, 난생 처음 데모 주동자가 된 나는 잠시 도피 행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다.

당시 나는 기관원에 의해 연행돼 문리대 학장실에서, 잔디밭에서 시작된 시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론 유인물이 가득 들어 있는 책가방은 친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을 뿐이다. 친구들 몇몇이 일어나 기관원이 제지하면 서로 자발적으로 일어나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 뒤 시위대는 문리대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나는 어떻게든 농성장에 성명서를 투입해 발표케 하려 했으나 농성은 쉽게 끝나고 말았다. 이날 시위로 구속된 학우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가을을 보냈다. 입영을 앞두고 감옥에서 쓰라린 세월을 보내는 학우들을 그리며 남아 있는 친구들과 통음하다가 동승동 캠퍼스를 떠났다. 대학로는 젊



은 우리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들뜨게 했지만 동시에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다.  
지금 『한겨레』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우 김형배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의 대학 시절을 색깔로 표현하면

현란한 요즘의 대학생과는 달리 너무나 대조적인 잿빛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나서서 자유와 민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끓어오르는 정열이 있었기에

잿빛 어둠 속에서도 심장은 뜨거웠던 것 같다.

젊은 날을 회상하면 지금도 그 정열이

내 피 속에 끓어 넘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

김주연 newmedia@kpf.or.kr | 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민청학련 사건, YWCA위장결혼식 사건 등 관련 구속, 한국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임. 저서로 『보도지침』(공저) 등이 있다.